

# '07 한국전자전, 수출상담 24.3억불 등 큰 성과 기록

- 내년부터 반도체산업대전, 정보디지털전과 통합 개최 -



본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전자분야 종합 전시회인 「2007 한국전자전(KES)」이 “Home to New Digital Life”라는 주제로 지난 10. 9(화) ~ 10. 13(토)까지 5일간 KINTEX 개최되어 2만 2천여명해의 바이어 5,800명의 참관과 수출상담 24억 3천만 달러의 큰 성과를 기록하며 13일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업체들은 고화질 Full HD TV, Full HD 홈 씨어터, 듀얼 포맷 DVD Player, 고성능 휴대전화, 초슬림 고기능 S노트북 PC 등 신제품을 내놓아 많은 참관객들의 시선을 끌었고, 일본의 샤프, 중국의 하이얼 등도 첨단 신제품을 내놓았다. 특히 6년 만에 전자전에 참가한 소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11인치 OLED TV,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TV 등을 전시하면서 한국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을 펼쳐기 시작했다.

금년으로 38회째 열렸던 「2007 한국전자전」은 우리 전자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가능해 보고,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위상을 한층 제고 시키는 장이 되었으며, 일본의 소니, 샤프, 다이오유엔, 중국의 하이얼 등 세계적인 글로벌 전자기업과 중국, 대만 등 해외기업 220여개사가 참가하여 국제화, 대형화 전략아래 성장하고 있는 한국전자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2007 한국전자전 개요

### □ 개 요

- 행사명 : 2007 한국전자전  
(Korea Electronics Show 2007)
- 일시 / 장소 : 2007. 10. 9(화)~10. 13(토), 5일간/KINTEX
- 주 제 : Home to New Digital Life
- 전시품목 : 정보가전/정보통신/산업용전자/ 전자부품 등 약 25만점

### □ 목 적

- 전자산업의 수출증대 및 내수시장 활성화
- 최신 기술동향 파악 및 시장정보 교환으로 신제품 개발 촉진

### □ 추진기관

- 주 최 : 산업자원부, 경기도
- 주 관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KOTRA
- 후 원 : 정보통신부, KBS, MBC, SBS,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전자신문

- 수출상담 : 24억 3천만 달러(잠정 집계)
- 해외 바이어 수 : 5,800명(잠정 집계)
- 총 참관객 수 : 212,000명(잠정 집계)

또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LG전자 이희국 사장, Sun Microsystems의 Scott McNealy 회장 등 국내외 저명인



사를 초청하여 진행했던 Keynde Speech는 미래 전자산업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며, 각종 기술세미나와 SONY 및 Haier 등 Global 기업의 신제품 발표회 등이 개최되어 참가자들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기술

발전 현황과 전망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었으며, Global 바이어 초청 구매정책 설명회, 중국, 베트남, 러시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Global 바이어 초청 부품소재 수출상담회 등이 개최되어 많은 상담실적을 올리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Matchmaking의 장이 되었다.

2008년 부터는 한국전자산업의 위상에 걸 맞는 세계적 수준의 대형 전시회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한국전자전(KES)과 반도체산업대전(iSEDEX), 정보디스플레이전(IMID) 3개 전시회가 「한국전자산업대전」이라는 명칭으로 KINTEX에서 공동 개최될 예정이다.

## 『KES 2007』개막에 즈음하여

전자산업인 여러분!

전자산업 축제의 장場 인『KES 2007』은 Home to New Digital Life 라는 주제로 세계 전자산업을 선도하는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 Sony, Sharp, Haier, Taiyo Yuden 등 국내외 많은 Global IT 기업이 참가하는 가운데 KINTEX에서 보다 발전된 모습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전자산업진흥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자IT 전문 전시회인 한국전자전(KES)의 국제화·대형화를 비롯, 고품격 전시회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Global IT 기업의 유치, 유력 바이어 초청은 물론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많은 부문에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올해로 38회를 맞이하는 『KES 2007』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25개국 630개 업체가 참가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고품질 첨단 IT 제품의 경연장이 될 것입니다.

『KES 2007』은 다양한 미래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게 될 신기술시연관, IT 제품 우수디자인을 보여주는 Good Design관, 신개발 우수 전자부품관 등을 설치하여 일반 부스와는 차별화된 전시관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IT 기업 초청 부품소재 무역상담회, 중국, 베트남, 러시아 전자업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참가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 Sun Microsystems의 Scott Mcnealy회장과 LG전자 이희국 사장의 Keynote Speech는 디지털 융합 시대 이후 도래할 전자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첨단 정보를 소개하는 각종 국제세미나, 주요기업들의 신제품 발표회 등

을 통해 다양한 선진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유관기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부가가치 지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시산업은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부를 창출하는 유망한 미래 산업입니다. 미국, 독일을 대표하는 CES, CeBit이라는 전시회가 있듯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ES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전시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KES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화를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KES 2007이, 참가업체들에게는 전자산업의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는 물론 중소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참관하시는 모든 업체 및 관계자분들께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로, 정부나 관련 기관들께는 국가의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07 한국전자전(KES)이 그 어느 해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신 많은 국내외 기업체와 관련 기관에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 10. 9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

윤종용